

인구교육이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

왕석순* · 임양미**1)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Wang, SeokSoon* · Lim, YangMi**1)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eonj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population education on university male·female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The subjects were 71 university students(male: 36, female: 35) participating in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aired t test and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population education led to positive changes i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Specifically, after taking the population education courses, students' levels of knowledge on population education contents and on foreign·domestic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ncreased. Secondly, there were students' sex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on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For only femal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hanges in realization of the seriousness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in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population education,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child-care centers to solve the issues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ies, in knowledge levels of foreign·domestic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and in awareness of family of small members(ex. single famili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role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ere suggested in population education.

Key words: 인구교육(population education),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가정과교육(Home Economics Education)

1) 교신저자: Lim, YangMi,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Jeonju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63-220-2338, Fax: 063-220-2053, E-mail: ym68@jj.ac.kr

I.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2002년 1.3명 이하로 줄어들어 2005년 1.08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Song, Lee, & Kim, 2011), 지난 8년 동안 평균 1.2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국가에서는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인구구조의 불평등을 야기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인 사회로,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超)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eo & Lim, 2010).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 저하와 국가 예산 배분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즉,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경제활동인구가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는데, 경제활동인구의 주축인 30~40대 인구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향후 경제성장 저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hoi(2011)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고령화관련 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재원 배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저출산은 고령화된 인구구조를 유발하고, 이러한 지속적 인구변화가 생산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져 왔다.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 및 경제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가치관 및 규범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해 결혼 연령층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진 점(Joung & Choi, 2013; Lee & Choi, 2012; Sohn, 2005), 자녀양육비 및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IMF 이후 고용 불안정과 주택마련비용 상승으로 인해 결혼을 유보하는 현실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Oh &

Choi, 2012). 또한 과거에 비해 개인의 성취 및 경제적 수입이 증시되는 개인중심적 가치관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규범이 여전히 만연함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Kim, 2005; Kim & Seo, 2012). 특히 몇몇 연구자들(Lee, 2005, 2006; Sohn & Kim, 2010)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및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비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친가족적 가치관이 감소하고 있고 그에 비하여 여전히 지속되는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출산을 저하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제안되었다. OECD 국가들의 저출산 대책방안은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은 취업여성의 유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파파쿼터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공공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으로 대별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보육정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가시적인 성과수준은 미비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2,332개이며 국공립 유치원은 4,577개로 전체 국공립 유아교육기관(52,448개) 중 13.2%에 불과하며(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19명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사회의 저출산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확립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구교육은 국가의 적절한 인구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하며, 가족에 대한 이해, 임신과 출산, 부모됨의

이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Kim, 2013; Kim & Seo, 2012; Lee, 2006). 특히 인구 및 결혼가치관 등의 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므로, 인구교육은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Cha, 2013).

우리나라에서 인구교육이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점은 1970년대로 그 당시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억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인구교육 내용 역시 적은 수의 자녀출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Choi & Nam, 1986).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인구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관심을 받으며, 과거 뮐더스식의 인구억제 인구교육이 아닌 새로운 방향의 인구교육이 요청되면서(Wang & Jeon, 2005; Wang & Jeon, 2006), 인구교육의 내용 구성 및 효과분석과 관련된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우선 인구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된 연구들(Choi, 2005; Han, 2011; Lee, 2014; Seo & Lim, 2013; Wang et al., 2011; Yoon, 2013; Yu, 2012)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인구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Wang 등은(2005; 2006)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교과서 보완 및 개편 지침 자료’를 개발하여 제시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뮐더스식의 인구억제 교육을 비판하고, 인구교육은 개인의 행복과 시민적 의무의 균형에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개인의 생애설계차원의 교육으로 변화하여야 함을 강조하면서 인구교육의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Yoon(2006)은 Wang 등(2005; 2006)이 제시한 인구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터하여,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 기준을 개발하였다. 학교 인구교육은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4개 대영역을 중심으로 생명존중 및 아동·고령자의 인권, 성평등 및 연령평등, 인구변동 구조 및 사회,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전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출산과 양육, 고령자에 대한 이해와 노년기 준비, 저출산·고령화 지원제도, 직업세계의 변화 등의 소영역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인구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 구성을 다룬 연구 외,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

들(Bang & Nam, 2013; Hong, Kim, Choi, & Park, 2011; Kang, 2004; Kim, 2013)이 수행되어져 왔다. 인구교육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인구교육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별도의 교과목이 아닌 기술·가정 및 사회 등의 교과목에서 인구교육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대학교에서 별도의 인구교육 강의를 개설한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인구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Bang & Nam, 2013; Hong et al., 2011; Kang, 2004; Kim, 2013)은 학교현장에서 인구교육을 실시한 이후,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족가치관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대체로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긍정적인 가족가치관을 조장하며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교육의 확대를 위해 인구교육 강화를 운영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교육의 효과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인구교육의 효과를 다룬 몇몇 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우선 인구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효과를 탐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는 인구교육의 내용에는 인구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임신과 출산, 부모됨의 이해 등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도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생명존중,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므로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이러한 하위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교육의 내용을 다룬 몇몇 연구(Lee, 2014; Wang et al., 2011; Yoon, 2013)들을 통해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가 인구교육에 포함될 핵심내용으로 제시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구교육의 효과를 이러한 핵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규명하는 시도는 표준화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구교육의 효과를 피교육자의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는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존재하며, 몇몇 연구를 통해 인구교육의 효과는 피교육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자대학생은 남자 대학생에 비해 자녀출산 및 양육부담을 더 느끼며(Kim et al., 2012; Sohn & Kim, 2010),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Kang(2004)의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이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남아 선호도가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크게 낮아진 반면 여자 고등학생이 남자 고등학생에 비해 희망자녀수가 더 많아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인구교육의 대상이 주로 결혼과 출산을 수행할 미혼 남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성역할 및 결혼가치관,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남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인구교육의 효과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는 접근은 향후 효과적인 인구교육 운영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인구교육 강의를 개설한 J 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대학생의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인구, 가족, 인간존중, 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II. 관련문헌 고찰

1.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 경제학,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우선 인구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출산행위는 소득 및 교육수준, 경제활동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ramer, 1987). 인구학적 관점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 사회적 배경으로 가족계획사업과 산업화를 지적할 수 있다. 즉,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해 주 혼인 연령층인 20~30대 인구가 감소하였으며, 산업화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Joung & Choi, 2013; Lee & Choi, 2012; Sohn, 2005). 그러나 인구학적 관점은 가족계획정책이나 산업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유발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Sohn, 2005).

둘째, 경제학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은 자녀가 주는 효용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여 자녀 출산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즉, 개인은 자녀양육으로부터 얻는 즐거움, 자녀의 노동으로부터 얻는 이익, 노후의 생활보장책으로 자녀를 인식하는 등 자녀출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자녀출산을 결정하게 된다(Leibenstein, 1975). 또한 몇몇 미시경제학자들은 출산율을 소득수준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Becker(1976)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비재의 구매욕이 증가하는 것과 유사하게 자녀출산 의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녀수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Dusenberry와 Okun(1960)은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자녀수를 증가시키기보다는 제한된 수의 자녀에 대하여 많은 비용을 투입함으로써 자녀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의욕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Sohn, 2005,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연구들(Cha, 2008; Chung & Chin, 2008)을 통해 높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가 둘째 자녀의 출산기피현상

을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됨에 따라 Dusenberry와 Okun(1960)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학 및 경제학적 관점에서 제기한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교육 및 소득수준, 자녀양육비용 등에 초점에 맞추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인구학적 특성상 취약계층 중심으로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선별적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적 성과는 아직 미비하다(Shin, 201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학적·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셋째, 저출산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여러 가치관을 포함한 개념으로 출산, 양육, 결혼 및 성에 대한 가치나 태도를 의미한다(Eun & Lee, 2005). 가족지관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변화를 발생시킴과 동시에 사회의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게된다(Sohn & Kim, 2010). 우리나라의 가족가치관은 ‘가족중심주의(collectivism) 대 개인중심주의(individualism)’ 축과 ‘가부장제 대 양성평등’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왔다. ‘가족중심주의 대 개인중심주의’ 축은 가족 및 집단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에 선행하는지 그 여부에 관한 논의로서 가족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가족의 이익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개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는 개인의 이익이 가족, 지역,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된다. 한편 ‘가부장제 대 양성평등’ 축은 의사결정 권한 소재에 관한 구분으로 남성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남성의 권위를 중시하는 가부장제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모두의 의견과 권한을 존중하는 양성평등 가치로 대별된다(Sohn & Kim, 2010).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주의와 가부장제 성향이 강했으나,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개인중심주의와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데(Choi, 2009), 특히 젊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이러한 의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듯이 Kim 등(2012)이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

산동향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혼여성 중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56.7%)가 미혼남성(67.5%)에 비해 적었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미혼여성(78.8%)이 미혼남성(83.8%) 보다 적었으며 미혼여성의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09년 81.8%에서 2012년 78.8%로 낮아졌다. 또한 미혼여성이 무자녀·소자녀를 희망한 경우 주요한 원인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반면 Sohn과 Kim(2010)의 연구결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Sohn과 Kim(2010)의 연구에서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에 비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 대학생의 경우 여자 대학생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Kim 등(201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결과에 대해 Sohn과 Kim(2010)은 남성의 경우 결혼에 드는 소요비용(주택, 고용)의 부담감으로 인해 결혼을 유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한편 성역할 인식 또한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가사 및 자녀양육은 여전히 여성의 역할로 인식됨에 따라 자녀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부부의 전반적인 양육 및 가사분담은 주로 부인이 하되 남편이 일부 도움을 주는 경우(70.8%)가 가장 많으며, 자녀양육활동 중 자녀의 학교공부지도를 부인이 주로 수행하는 경우(78.8%)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한 Kim 등(2012)의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Kim 등(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정 남편의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부담률이 홀벌이 가정의 남편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여전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부인이 주로 하고 남편이 도움을 주는 형태(가사노동: 68.5%, 자녀양육: 46.5%)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있어 여성은 아직도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취업여부에도 무관하다는 점

이 시사되고 있다.

이상의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다른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가치의 변화를 담보로 한 인구교육이 저출산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2. 인구교육의 개념과 연구동향

1) 인구교육의 개념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주 타겟층으로 하는 유급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남성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파쿼터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의 공공 유아교육기관의 확대, 무상보육료 지원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주로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할 뿐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제시된 친가족적 가치관 및 평등한 성역할 인식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친가족가치관 및 양성평등한 성역할 인식 형성,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인구교육이 저출산·고령 사회의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대두되었다.

멜더스식의 인구 억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인구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Wang 등(2005; 2006)은 “인구변화가 사회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여 친가족적인 가치관을 기르고 개인의 생애설계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시민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구교육지원법」(안) 제2조에 의하면 인구교육이란 “출생·사망 등에 따른 인구변화가 전체 인구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사회변동 현상,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는 인구교육을 “가정,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인

구 및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알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구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의 변화를 갖게 하는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Yu, 2012).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인구교육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구유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양성평등적인 성역할 가치관과 세대간 조화를 바탕으로 한 바람직한 가족친화적 가치관을 함양하여 행복한 개인의 생애설계를 도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교육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구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인구교육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일환으로 인구억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인구교육의 목적 및 내용 등을 탐색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인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어 인구교육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 크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구교육 연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초·중·고등학교의 사회, 기술·가정, 도덕 등과 같은 교과목에서 인구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여 인구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이다(Choi, 2005; Han, 2011; Seo & Lim, 2013; Wang et al., 2011; Yoon, 2013; Yu, 2012). 또한 Lee(2014)는 인구교육을 별도의 강좌로 실시하는 4개 대학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으며, Wang 등(2011)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교과목에서 인구교육 내용분석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제시된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구교육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기술·가정, 도덕, 사회 등의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며 대학교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될 경우 주로 별도의 강좌로 제공된다. 또한 인구교육은 대체로 인간존중(인권, 평등), 인구(인구변동, 저출산·고령화), 가족(출산과 양육, 고령자), 복지(지원제도, 직업)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방법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강의와 영상시청을 혼합한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관련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외부특강을 실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Yu, 2013). 반면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강의 외, 체험학습, 토론, 외부특강, 온라인 강의, 인구통계 활용실습 등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14).

두 번째 연구유형은 인구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인구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별도의 과목으로 실시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듯 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별도의 인구교육 강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혼과 출산, 자녀 및 성역할 가치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Kim(2013)은 인구교육 과목을 수강한 8개 대학 450명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인구교육의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인구교육을 수강한 후, 그 이전에 비해 가족주의적 태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결혼연령 및 첫출산 계획연령이 낮아진 반면 이상적인 자녀 수는 많아졌다. 특히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 인구교육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재량활동의 일환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한 후 효과를 분석한 Kang(2004)의 연구결과를 통해 지지되고 있다. Kang(2004)은 고등학교에서 6회의 인구교육을 수행한 결과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아졌으며 대가족 선호도 또한 높아졌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남아선호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여학생의 경우 희망 자녀수가 많아진 반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졌다. 반면 Hong 등(2011)은 대학생, 초·중등 교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수행한 결과 인구교육은 결혼 및 자녀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반면 성역할 가치관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구교육이 결혼 및 자녀가치관 변화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규범의 변화를 유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수업에서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Bang과 Nam(2013)의 연구결과 고령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교육 이후 높아졌으며 고령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가 제시되었다. 특히 Bang과 Nam(2013)은 인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고령화 사회현상을 예측에 보는 교수법 및 체험학습 등 다각화된 교수방법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인구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 또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인구교육이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및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교육의 효과는 수강자의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2013년 2학기에 개설된 인구교육 강좌(‘인구와 사회’ 교양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으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우선 남학생(50.7%)과 여학생(49.3%)의 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3, 4학년 학생이 55.0%로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의 전공을 소속 단과대학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사회과학 및 사범대학 학생이 2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선정한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n=71$)

Category		Frequency(%)
Sex	Males	36 (50.7)
	Females	35 (49.3)
	Totals	71 (100.0)
Grades	The 1st graders(freshmen)	15 (21.1)
	The 2nd graders(sophomores)	17 (23.9)
	The 3rd graders(juniors)	19 (26.8)
	The 4th graders(seniors)	20 (28.2)
	Totals	71 (100.0)
Majors	Humanities	5 (7.0)
	Social science	20 (28.2)
	Business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15 (21.1)
	Education	20 (28.2)
	Engineering	2 (2.8)
	Art and physical education	3 (4.2)
	Medicine	6 (8.5)
	Totals	71 (100.0)

1)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은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Population Education Center(2013)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은 ‘초·중·고등학생 대상 인구교육은 필요하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구교육은 필요하다’, ‘나는 인구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인구교육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관심수준을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5이었다.

2)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또 다른 종속변인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또한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Population Education Center(2013)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 저출산·고

령화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 결혼 및 가족가치관에 대한 태도, 성역할 인식, 인간존중, 정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구성되며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척도의 가능한 점수범위는 11~5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전반적인 인식 및 이해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척도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값은 .7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인구교육 강좌는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9일까지 15주 동안 매주 1회씩(3시간) 실시되었다. 본 인구교육 강좌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구교육의 내용은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 기준으로 제시된(Yoon, 2006) 인간존중, 인구, 가족, 복지의 4개 대영역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는데, 인구현상 및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저출산·고령화 정책·제도, 가족 및 결혼, 자녀양육,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직업준비, 노후설계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방법

Table 2. The contents and instructional methods of population education

Subjects	Contents	Instructional method
1. Introduction and future direction of population edu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finition and purposes of population education • Why population education is needed: The introduction to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Political perspectives of population education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population education 	Lecture
2. Pop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nowledge of population • Trend analyses of population 	Lecture
3. Current status and polici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low fertility and aging in Korea •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a • Discussion topics: What are the policies related to low fertility and aging phenomena in local areas? 	Lecture, Discussion
4. Demographic transition and life-course planning(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alue of family • Family life cycle and family relationships • Discussion top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at is meaning of family to me? - What are your family life cycle and each developmental task of phase in family life cycle? 	Lecture, Discussion
5. Demographic transition and life-course planning(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x difference in thinking and behavior • Courtship • Mate selection preferences • Discussion topics: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mate selection? 	Lecture, Discussion
6. Demographic transition and life-course planning(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aning of marriage • Bottom drawer 	Lecture
7. Demographic transition and life-course planning(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gnancy and child-birth • Parenting • Discussion topics: What are the most desirable parents' roles? 	Lecture, Discussion
8. Multi-cultural society and diverse famil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 Adoptive families • Cohabiting families • Single parent families 	Lecture
10.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and work-family reconcil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bor market changes i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i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Work-family reconciliation i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Work-family reconciliation and old age preparation 	Lecture
11. Group presen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sentation of group pro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se studies of diverse families(ex.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multi-child families, DINK families, elderly single families) 	Co-op Co-op cooperation Teaching Method, Presentation

은 주로 강의와 토의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특히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통한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을 도모하기 위해 모듈별 과제를 부과하였다. 모듈별 과제는 “누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란 대주제를 기준으로, 수강생이 다양한 가족(예: 노인단독가족, 딩크족, 다문

화가족, 다자녀가족)을 면접하고, 발표하도록 하였다. 즉, 조별과제는 수강생을 5~6명씩 한 개의 조에 배정하고, 각 조가 선정한 가족을 면접할 내용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제공하였다. 면접내용은 구체적으로 가족의 일반적 배경 및 구성, 현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좋은

점, 어려운 점, 해당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인식여부, 향후 정책방향 및 보완점 등이었다. 발표 수업은 학기말에 실시하였고,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수 발표 모듬에 대한 시상도 실시하였다. 인구교육 강의는 가정교육과 교수 2인과 아동가족학 박사학위 소지자인 시간강사 1인, 총 3인에 의해 팀티칭(team teach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개강 첫날에 1차, 동일한 내용의 설문지로 종강날에 2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교육 강의에 참여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수강 이전과 이후에 측정된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정(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제시된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 수강 이전과 이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대학생의 성별을 집단 간 변인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집단 내 변인으로 분할구획요인설계(split plot factorial design)를 적용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연구문제별로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인구교육 수강 이후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 각 설문조사의 평균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 결과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인구교육($t=2.35, p<.05$) 및 저출산·고령 사회($t=2.01, p<.05$)에 대한 인식 및 이해수준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아졌다. 특히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의 어떠한 하위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t=3.98, p<.001$)와 한국($t=5.18, p<.001$) 및 외국의 인구정책($t=2.44, p<.05$)에 대한 이해수준이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전 보다 이후에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수강생의 결혼 및 출산, 정부의 인구정책 및 고령화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한 Kim(2013), Kang(2004), Hong 등(2011) 및 Bang과 Nam(2013)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따라서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인구교육의 필요성 및 이해, 관심도를 높이며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Table 3. The comparison of pre·post test scores on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n=71$)

Dependent variables	Pre-education scores	Post-education scores	t
	M(SD)	M(SD)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20.10 (3.51)	21.38 (2.92)	2.35*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40.55 (4.66)	42.02 (3.83)	2.01*

* $p < .05$

Table 4. The pre and post education scores of male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Dependent variables	Groups	Pre-education scores	Post-education scores	t
		M(SD)	M(SD)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Male(n=36)	21.21 (3.18)	20.29 (2.19)	1.33
	Female(n=35)	18.97 (3.52)	22.51 (3.18)	4.57***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Male(n=36)	41.57 (5.09)	40.50 (3.75)	1.20
	Female(n=35)	39.50 (3.98)	43.57 (3.30)	4.09***

***p < .001

2.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 비교

인구교육 수강 전·후,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성별을 집단 변인으로, 사전·사후 조사를 집단 내 변인으로 지정한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5>에 의하면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 사전·사후 조사시기의 주 효과(F=7.51, p<.01)와 사전·사후 조사와 대학생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F=21.79, p<.001)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즉, 인구교육 인식은 인구

교육을 수강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인구교육 인식에 대한 인구교육 수강경험(사전·사후 조사)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해 본 결과(<Figure 1> 참조), 여학생의 경우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이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M=18.97) 보다 이후(M=22.51)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t=4.57, p<.001).

한편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의 경우 또한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사전·사후 조사시기의 주 효과(F=5.07, p<.05)와 사전·사후 조사와 대학생의 성별 간의 상호작용 효과(F=14.83, p<.001)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 사회 인식은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에 비해 이후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저출산·고령 사회 인식에 미친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저출산·고령 사회 인식에 대한

Table 5. The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s of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and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n=71)

Variables	Source of variances	SS	df	MS	F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Between subjects	Sex	0.01	1	0.01	0.99
		Error	730.63	69	10.59	
	Within subjects	Pre·Post	60.87	1	60.87	7.51**
		Pre·Post X Sex	176.65	1	176.65	21.79***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Error	559.34	69	8.11	
	Between subjects	Sex	8.93	1	8.93	0.51
		Error	1,218.92	69	17.67	
	Within subjects	Pre·Post	79.99	1	79.99	5.07*
		Pre·Post X Sex	234.32	1	234.32	14.83***
	Error	1,089.90	69	15.80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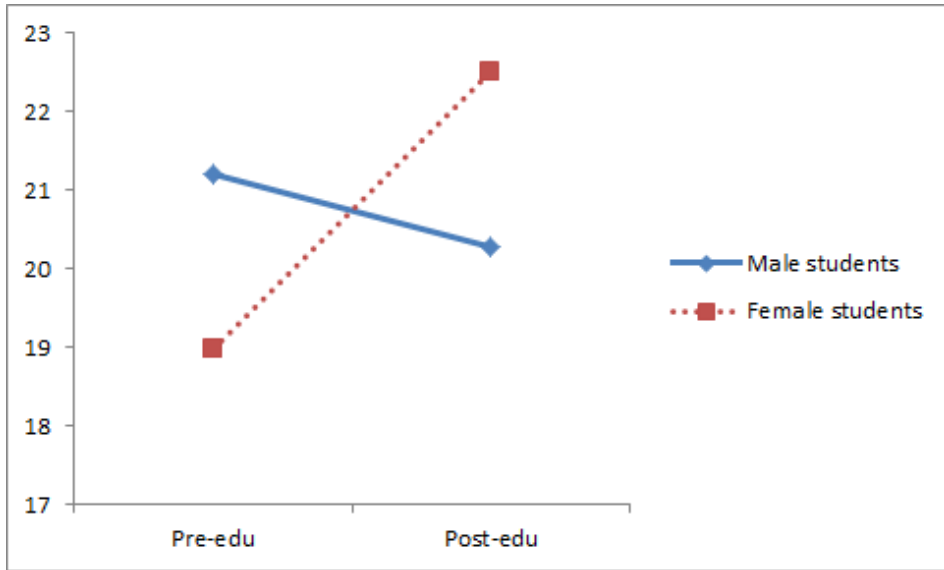


Figure 1.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 test scores on male·femal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인구교육 수강경험(사전·사후 조사)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도식화해 본 결과(<Figure 2> 참조), 여학생의 경우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이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M=39.50) 보다 이후(M=43.57)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t=4.0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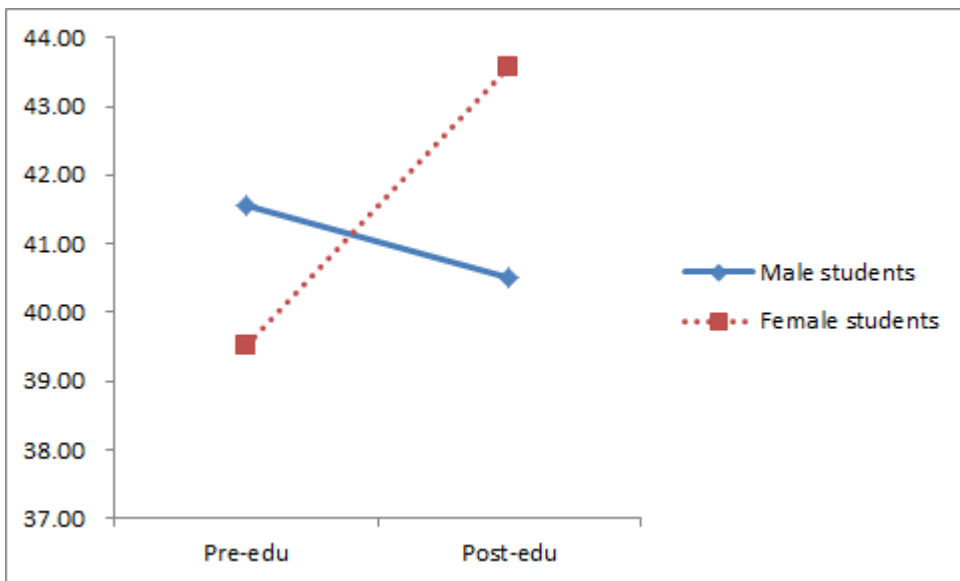


Figure 2. The comparison of pre and post test scores on male·female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Table 6. The item comparison of pre·post test score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population education recognition scales($n=35$)

Items	Pre-education scores	Post-education scores	<i>t</i>
	<i>M(SD)</i>	<i>M(SD)</i>	
(1) Population education is required of all students from elementary schools to high schools.	3.69 (0.83)	4.12 (0.66)	2.33*
(2) Population education is required of all pre-service teachers.	3.69 (0.72)	4.29 (0.67)	3.12**
(3) I understand the contents of population education well.	2.51 (0.74)	3.11 (0.95)	2.93**
(4) The text and materials of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customized to students.	3.46 (0.82)	4.09 (0.68)	3.13**
(5) I am interested in population education.	3.14 (0.85)	3.33 (0.87)	0.88
(6) It is necessary to expand population education in both curriculum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of extra-curriculum.	3.23 (0.73)	3.58 (0.92)	1.79

* $p < .05$, ** $p < .0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여자 대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구교육 경험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와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더 크다고 보고한 Kim(2013)과 Kang(2004)의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

한편 여자 대학생이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어떠한 내용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 인식 척도의 문항별로 추가적인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우선 인구교육 인식의 경우 인구교육의 필요성을 다룬 문항 1($t=2.33$, $p<.05$)과 문항 2($t=3.12$, $p<.01$), 인구교육의 내용에 대한 이해($t=2.93$, $p<.01$), 인구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재나 자료의 필요성($t=3.13$, $p<.01$)에 대한 인식 등의 문항에서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제시되었다 (<Table 6> 참조). 또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의 하위문항 중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 인식 ($t=2.28$, $p<.05$), 국내($t=5.09$, $p<.001$) 및 해외($t=2.25$, $p<.05$) 인구정책에 대한 지식,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의 필요성($t=3.77$, $p<.01$),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보육시설 확보의 필요성($t=3.51$, $p<.01$),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t=2.09$, $p<.05$) 등의 문항에서 인구

교육을 수강한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Table 7> 참조). 따라서 인구교육의 수강경험은 여학생의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대책방안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여대생의 희망 자녀 수 및 결혼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Kim(2013)의 연구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친가족적 가치관 및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와 Kim(2013)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은 인구교육의 효과를 살펴본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Kim(2013)의 연구에서는 인구교육의 효과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적 결혼연령 및 결혼의향, 이상적인 자녀수 및 자녀에 대한 태도, 출산의향과 계획된 자녀 수 등의 세부적 영역에서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반면 본 연구의 경우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저출산·고령 사회에 인식, 인구정책, 성역할 인식, 인간존중,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등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Kim(2013)의 연구와 달리 저출산·고령 사회와 관련된 다른 내용과 함께

Table 7. The item comparison of pre·post test scores on female university students'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recognition scales($n=35$)

Items	Pre-education scores <i>M(SD)</i>	Post-education scores <i>M(SD)</i>	<i>t</i>
(1) The current phenomena of low fertility and aging are serious issues in Korea.	4.34 (0.64)	4.61 (0.46)	2.28*
(2) I know the population policies and population education policies of Korea well.	2.54 (0.61)	3.27 (0.72)	5.09***
(3) I know the population policies of foreign countries well.	1.97 (0.75)	2.43 (0.96)	2.25*
(4) The family friendly value is important i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3.59 (0.65)	3.77 (0.62)	1.38
(5) Life contempt tendency of a human being should be broken in order to overcome low fertility phenomena.	3.40 (0.95)	3.76 (0.93)	1.31
(6) The culture of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needed in the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3.83 (0.66)	4.34 (0.57)	3.77**
(7) Child-care centers should be sufficient to solve the issues of low fertility.	4.09 (0.78)	4.57 (0.52)	3.51**
(8) Marriage and childbirth have the right timing and thus those should be put ahead of the others.	3.66 (0.80)	3.96 (0.81)	1.39
(9) Childbirth encouragement is more important than increasing multi-cultural families to solve the issues of low fertility in Korea.	3.86 (0.88)	4.11 (0.68)	1.16
(10) It is undesirable to discriminate the family of small members(e.g. single families) as abnormal ones.	4.23 (0.60)	4.51 (0.58)	2.09*
(11) Aged society is closely related to low fertility in Korea.	4.00 (0.91)	4.25 (0.68)	1.43

* $p < .05$, ** $p < .01$, *** $p < .001$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본 연구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대책방안에 대한 인식수준에 있어 인구교육의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의미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Table 7>을 보면, 결혼 및 자녀와 관련된 4번 문항, 8번 문항은 모두 인구교육을 수강한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이후에 점수가 더 높아졌으나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에 대한 이해 및 대책방안과 관련된 문항(예: 1,2,3,6,7,10번)에 비해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인구교육이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교육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탐색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대학생의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구교육의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국·내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 수강경험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인구교육 수강 이후, 그 이전에 비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졌으며, 인구교육 대상에 적합한 교재나 자료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또한 인구교육 수강 이후, 여학생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형성 및 보육시설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구교육 수강경험은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반면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친가족적 가치관 형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에 대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교육의 효과를 주로 결혼계획, 초혼연령 및 이상적인 자녀 수 등 수강생의 사적인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계획에 초점을 맞춘 몇몇 연구(Hong et al., 2011; Kim, 2013)들의 경우 인구교육 수강이전에 비해 이후에 긍정적인 변화가 도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 사회라는 사회적 문제 내에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태도, 가족주의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의 경우 인구교육의 수강경험은 다른 영역과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수적으로 아직 부족하며, 그 효과 역시 결혼 및 자녀출산 계획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 연구의 결과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즉, 인구교육의 효과를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도방안에 대한 이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이해, 결혼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인구교육의

영역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인구교육의 효과가 여학생에 한해서 나타났으며 주로 인구교육의 필요성과 이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 등 인지적인 측면에서 주로 긍정적인 변화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인구교육을 통해 한 개인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태도변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특히 남학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 연구의 결과는, 친가족 가치관이나 양성평등한 태도 등을 위한 교육적 개입이 남학생에게 보다 중요하게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특히 가치나 태도가 형성되는 대학 이전의 시기에 개입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과목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별도의 교과목 개설이 아닌 기술·가정, 사회과, 도덕과 등의 교과목 안에서 인구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어떤 교과에 인구교육을 위한 주요한 임무가 있는가를 고려할 때, 가정교과는 다른 어떤 교과보다 인구교육의 내용전반을 잘 포함하며 교과의 목표도 학교 인구교육의 내용영역 전반을 잘 포함하므로 가정교과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현재 가정교과는 학문배경이 다른 기술과목과 통합되어 있어 인구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Wang et al., 2011). 따라서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분된 교육과정의 시수를 가정교과에 주로 배정하여, 가정교과를 통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인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구교육은 대학교에서는 별도의 강좌로 개설되어야 하고, 특히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의 경우 인구교육관련 과목의 개설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으며, 직장 등에서 실시되는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에 인구교육의 기본개념을 좀 더 확대시켜 적용함으로써 인구교육을 평생교육의 입장에서 접근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구교육

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해 인구교육의 효과를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인구교육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구교육의 효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장기간의 인구교육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상 인구교육의 내용을 다른 전공에 비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가정교육과 및 아동·가족학 관련 전공 학생과 상대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는 타 전공(예: 이공계) 학생 간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비교하거나 가정교육과 및 아동·가족학 관련 전공에 입학한 학생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졸업할 때까지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가능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Bang, W.R., & Nam, S.J. (2013). The design of a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applying a future education techniqu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Society*, 17, 69-88.
- Becker, G.S.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 S.E. (2008). Cost/reward of parent role and decision to have a second child: Focused on socioeconomic differences. *Social Welfare Policy*, 33, 111-134.
- Cha, W.K. (2013). Symposium for Population Education in 2013. *The strategy to emphasize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revision of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11-40.
- Choi, J.S.(2009). *The family and society in Korea*. Incheon: Kyungin publishers.
- Choi, S.E. (2011). Sustainable public financing and spending in countering low fertility and aging.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72, 35-43.
- Choi, S.I. (2005). New population education in the era of low rate of fertility. *Social Studies Education*, 44(2), 59-81.
- Choi, Y.D., & Nam, S.J. (1986).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population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4(1), 35-48.
- Chung, H.E., & Chin, M.J. (2008). The intention of having a second child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1(1), 147-164.
- Eun, K.S., & Lee, Y.S. (2005). Family valu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28(1), 107-132.
- Han, S.R. (2011). The content system of population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dapting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4(2), 19-41.
- Hong, H.S., Kim, M.Y., Choi, Y.H., & Park, W.J. (2011).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program on value of marriage, childbearing and gender equality among unmarried yout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15(2), 152-165.
- Joung, E.H., & Choi, Y.S. (2013).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Birth Plan for Second Child and Second Birth for Married Women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1), 5-34.
- Kang, D.J. (2004). The changes of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population through population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H.G. (2013). The effect of population education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toward marriage and childbearing among college students. *민족문화논총*, 55, 233-256.
- Kim, H.G., & Seo, J.Y. (2012). Factors impacting on the marital and childbearing willing among college students. *민족문화논총*, 52, 175-206.
- Kim, S.G., Park, J.S., Kim, Y.G., Kim, Y.W., Choi, Y.J., Son,

- C.G., & Yoon, A.R. (2012). *The nationwide survey of marriage and childbirth trend in 201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T.H. (2005). Personal value changes and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3, 16-24.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Population Education Center (2013). The scale of recognition of population education.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s Population Education Center (2013). The scale of recognition of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Primary & Secondary Educational Statistics in 2013. Retrieved November, 1st, 2014 from Korean Educational Statistics Service site(<http://kess.kedi.re.kr/index>).
- Kramer, M.S. (1987). Determinants of low birth weight: methodological assessment and meta-analysis.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65(5), 663-737.
- Lee, J.S., & Choi, W.S. (2012). A path analysis on Birthplan of married working Wom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of gender role attitude, work -family reconciliation, marriage satisfaction and birth pla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3(4), 5-30.
- Lee, S.J. (2014).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organization of 'population education' lectures for low birth rate and aged socie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469-486.
- Lee, S.S. (2005).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curricula of population education*.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S.S. (2006). Causes of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option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1, 5-17.
- Leibenstein, H. (1975).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declin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 1-31.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3). The statistics of child-care in 2013.
- Oh, C.S., & Choi, S.H. (2012). The empirical study on the cause of low fertility factors to impact on falling of nuptiality and rising of age at first marriage. *Journal of Public Welfare Administration*, 22(1), 91-125.
- Seo, T.Y., & Lim, E.J. (2013). The direction and cor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low-birth rate and old-aging era in Korean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Education*, 52(4), 23-35.
- Shin, N.R. (2013). Exploring pathways from paternal involvement in childrearing to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by the employment status of married wome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22(3), 405-420.
- Sohn, S.Y. (2005). Causes of low fertility rate in Korean society and suggestions for family-friendly policies. *Family and Culture*, 17(2), 285-316.
- Sohn, S.Y., & Kim, E.J. (2010). A study of the gender and generation differences of the family values and perception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Hyousang-gwa-Insik*, 34(4), 167-181.
- Song, Y.J., Lee, J.O., & Kim, C.K. (201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of mothers with and without jobs: Focusing on psychological and family role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85-206.
- Wang, S.S., & Jeon, M. K.(2005). The instructional methods for 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For the uses of teachers). Ministry of Education.
- Wang, S.S., & Jeon, M. K.(2006). The development of textbooks revision manual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Wang, S.S., Kang, N.S., Kim, S.H., Kim, Y.H., Baek, M.K., Lee, E.H., & Hwang, G.H. (2011). the Summer Conference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of 2011. *Content analysis of population education in the curricula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education college*, 73-114.
- Yoon, I.K. (2013). Analysis of the contents of school population education 4 - in the textbook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moral subject and social studie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6, 1-22.
Yu, J.Y. (2012). The actual condition and tasks of teachers'

population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2(3), 339-362.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구교육이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이러한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대상은 J 대학교에서 인구교육 강좌를 수강한 대학생 71명(남: 36명, 여: 35명)이었으며 조사도구는 인구교육에 대한 인식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인구교육을 수강하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 조사가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와 대응표본 t 검증, 반복측정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교육은 대학생의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국내·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였다. 둘째, 인구교육이 인구교육 및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여학생에 한해서 인구교육이 인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해수준을 높이며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국내·외 인구정책에 대한 이해도, 저출산·고령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문화 및 보육시설의 확보의 필요성, 소수의 가족형태에 대한 인식 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유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 현안인 인구교육은 태도의 변화가 더 중요하며,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가치가 형성되는 초등학교 및 중등교육에서 보다 인구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교육과정 중 친가족적 가치관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을 다루는 ‘가정교과’의 중요성과 역할을 제안하였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12월 05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12월 05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12월 11일